다음에 따라 (가)와 (다)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**선생님:**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. (가)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, (다)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.

① (가)에서 화자는 ‘유자낡에 유자가 열리’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듦이 당연함을, (다)에서 글쓴이는 ‘사양하지 않’는 ‘집’에 주목해 이견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.

② (가)에서 화자는 ‘신비스러운 경사감’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, (다)에서 글쓴이는 ‘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’는 ‘뜰’에 주목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.

③ (가)에서 화자는 ‘하늘과 맞닿’아 있는 대상을 통해, (다)에서 글쓴이는 ‘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’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.

④ (가)에서 화자는 ‘저녁 햇살’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, (다)에서 글쓴이는 ‘큼과 작음’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.

⑤ (가)에서 화자는 ‘기우는 세계’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완전함을, (다)에서 글쓴이는 ‘편히 여기며, 자고 거처하는 집’에 주목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.